



어느덧 2021 년도 마지막 12 월이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2021 년도를 보내고 새롭고 기대가 되는 2022 년도를 선물로 주시네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은 계속 귀한 믿음을 가지고 힘든 여정을 헤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지로 가지 못하니까. 새로운 곳을 개척하게 되었고 SJ 동산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녹음을 할 수있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Set-up 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여전히 건강을 잘 챙기며 운동하며 약을 잘 드시고 계셔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22 년 새해부터는 그곳에서 멋진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리라 생각하며 한아름 꿈을 안고 귀한 사람들을 보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계속 위를 바라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대학 생활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으며 또한 HH 에 있는 아이들도 전부 대학에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며 제과 제빵집에도 재능들을 기부하며 시간들을 아껴서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아이들에게요.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도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항상 모든 것들을 신경 쓰며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왼쪽에 계신 분들의 삶은 현재 최악의 상태에서 춘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 염려가 많습니다. 겨울철 준비들을 어떻게 해서 어려운 순간들을 잘 헤쳐 나갈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계속 힘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이름들을 불러서 위를 향하여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남 스 아, 영 스 아, 창 스 아, 원 초 아, 대 스 아, 평 으 아, 혜 스 아, 희 스 아, 동 스 아, 성 스 야) ㅈ ㄹ!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 주십시오. 어떻게 이 겨울을 지나가야 할지? 도우는 손길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감당하리라 생각하며.. 계속하여 힘을 합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멀리서 뽀릴리 뽀릴리 소리를 울립니다.

12.2021 이전세, 옥소리 드림